

내달 가스요금 또 오른다

10월엔 전기요금과 동반 인상
치솟는 물가 더 끌어올릴 듯
가스공사 미수금 '6조원 + α'
내년 요금 인상도 예고된 수준

내달 가스요금이 또 오를 예정이어서 치솟는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가스·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만약 3분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당장 7월에도 두 공공요금의 동반 인상이 예상된다. 더욱이 가스 수입 요금과 판매 요금 사이의 격차로 쌓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6조원을 넘어 내년에도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이는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이 1조8,00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적된 미수금은 보통 이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한다. 정산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인상 시기를 세 차례로 분산했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도 갈수

록 커져 앞으로 가스요금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6조원 수준이다. 최근엔 그 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한 연말 대규모의 미수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내년 정산단가 인상은 사실상 예고된 수준이다.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이 쌓여 올해 세 차례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 횟수가 늘어나고 인상 폭도 더 커질 수 있다. 내년 정산단가 인상 폭을 줄이려면 결국 지난 4월처럼 올해 기준원료비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 서비스에 드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 쌓이는 미수금은 내년부터 회수하는데 7조~8조원 수준이면 회수에만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며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인세 낮추고 투자 세액공제 높여야"

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 건의
"고물가·금리·환율 고려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조세부담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3일 법인세 완화,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데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만 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대한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

세율(최고세율 25%)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1.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상생 지원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해서도 정책효과가 미미하고 기업에 조세부담만 커졌다며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대기업들에 대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현재 2%에서 5%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3%로 각각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계의 건의를 고려해 법인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소진공, 썬양과 함께 라이브커머스 진행

오늘 밤 9시·최대 30% 할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명 크리에이터 '썬양'과 함께 소상공인 협동조합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20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같이살래 함께하자'의 세 번째 행사로, 여름을 대비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추어탕, 한우떡갈비 등 우수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

일 예정이다. 방송은 14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위메프와 유튜브를 통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방송시간 동안 최대 30%까지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이번 방송에는 ▲남원 토종 미꾸리를 활용해 추어탕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있는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추어탕)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갖춘 옥두레협동조합(한우떡갈비)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치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꿈틀협동조합(로제닭갈비)이 참여한 다. /김혜린 기자



KT는 오는 15일 예정된 '누리호(KSLV-II)'의 성공적인 2차 발사를 위해 나로우주센터 주요 전송시설을 강화했다. /KT 제공

KT, 누리호 성공 발사 안정적 통신지원

주요 전송시설 보안 강화

KT는 오는 15일 예정된 누리호(KSLV-II)의 성공적인 2차 발사를 위해 나로우주센터에 안정적 통신회선과 방송회선을 지원하고 주요 전송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우주 발사체 발사임무 수행을 위해 KT 통신회선을 임차해 운용 중인

다. 통신회선은 누리호의 발사와 발사체에 대한 비행위치, 비행상태에 대한 데이터 수신을 가능하게 한다. 누리호 발사 통신망 운용을 전담하는 KT는 지난해 1차 발사 때보다 통신망 전송구간의 안정성과 품질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발사 당일 추적회선의 안정화를 위해 전송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했고 ▲임부 단일 전송구간은 완벽한 이원화를 완료했다. ▲제주주적소 전용회선과

팔라우 국제회선에는 백업 무선전송망을 추가로 개통하고 자동 절제 기능을 적용했다. KT는 주요 전송시설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했고, 발사 당일에는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전담요원을 주요 전송시설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참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발사 전망대, 남열해수욕장 등에는 무선망 호소통을 위한 이동기지국 차량 2대를 배치하고 무선망 관제를 강화한다. /김혜린 기자

aT, 농수산물 수급 긴급 대책회의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대응
수출 상황점검·대응방안 논의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임원, 부서장 등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수급·수출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aT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국민 식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상시비축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재고관리, 개인영업 운송차량을 활용한 대체운송 수단 마련, 농수산물품 수출 물류의 정상적 작동 점검, 창고 장기 보관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심도 있게 회의했다. aT는 이번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농산물의 수급과 수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계 애로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항구·운송업체·수출업체 등과 업계



동향 공유 등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정책지원 방안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춘진 aT 사장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수출 관리를 위해서는 수출업체, 운송업체, 정부 등과 긴밀히 공조하고 신속히 업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본·지가가 협력해 현장에서 총력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연속모델
강석우 내연신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견공,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아연, 셀레늄(Se)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국산 원재료 함유

Dr. Chung's Food

1주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프티드 www.edaymail.com 1번의 고객상담실 080-930-8888, (02)553-8888 www.vegamil.co.kr

● 서울-경기: 동부영업소 (03)942-4907, 북부영업소 (03)989-9392, 남부영업소 (03)291-6535, 관악영업소 (03)293-4999, 서양영업소 (03)294-2295, 안양영업소 (03)295-4298, ● 광주영업소 (03)374-8921
● 충청영업소 (04)283-8801, ● 전북영업소 (06)324-5731, ● 전남영업소 (06)294-5001, ● 경북영업소 (05)359-3441, ● 경남영업소 (05)323-6531, ● 광주영업소 (05)475-4331, ● 부산영업소 (05)104-6561